

# ISSUE & FOCUS

Newsletter 2016-11(1)

## 시대가 요구하는 통치이념과 지도자의 리더십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 이 글은 필자의 견해로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 1. 통치이념의 중요성과 리더십

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시끄럽다 못해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대통령은 이미 정치적 권위는 물론 가장 중요한 도덕적 권위까지 잃어버렸다. 지도자가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거꾸로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 한마디로 지도자의 국가 통치이념 부재와 리더십 결여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념은 무엇이고 리더십은 왜 중요한가?

사전에서는 이념을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로 설명한다. 또는 추구하는 가치와 준수할 규범을 이념이라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념은 구성원들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 구성원들이 이념을 공유할 때 이념은 개인은 물론 조직과 집단의 사상이 되고 철학이 되고 문화가 되고 지켜야 할 규범이 된다. 이념이 있고 없고는 많은 차이를 유발한다. 개인이나 조직에 이념이 있고 구성원들이 이를 공유하고 있으면

행동할 때 먼저 이념을 생각한다. 이념이 자기 제어역할을 한다. 반면 이념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이해관계를 우선하게 된다.

국가의 이념은 더욱 중요하다. 국가의 이념은 국가통치의 바탕이 된다. 이념이 정책방향과 전략개발의 준거가 되기 때문이다. 국가지도자가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느냐는 그래서 중요하다. 이념을 갖고 있는 지도자는 잦은 바람에 휘둘리지 않는다. 오히려 잦은 바람을 수렴하여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간다. 국가지도자는 소속정당의 이념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정당의 이념 또한 중요하다. 정당이 이념정당, 가치정당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념을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은 행동에 앞서 이념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의 잣대도 이념이 기준이 된다. 국가통치이념이 지도자에게 체화되어 있으면 현재 국정마비를 불러온 최순실 사태도 나타날 수 없다. 이 시점에서 여야 정치인을 비롯한 국민 모두는 당면한 이 위기를 극복하여 오히려 위기를 발전의 계기로 삼는 슬기를 발휘해야 한다. 올바른 이념을 세워서 미래로 나가야 한다.

국가 지도자는 국민에게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비전과 목표는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단순히 방향만 제시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 추진전략이 뒷받침 되어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성공한 지도자가 되려면 이익집단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선별하는 혜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 공익과 사익을 구분할 줄 알고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특히 사적인 부분으로부터 초연해야 한다. 목소리가 큰 집단보다 침묵하는 다수를 생각해야 한다.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올바른 일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나가야 한다. 이런 노력을 하는 지도자에게 국민은 신뢰와 지지를 보내고 지도자와 함께 희망의 항해를 하려한다.

## 2. 통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한 시점

오늘의 현실을 보면 지도자가 국민과 함께 희망의 항해를 떠나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대통령은 사적인 부분을 청산하지 못함으로서 최순실이라는 한 여인의 국정농단의 사태까지 유발했다. 오늘의 사태는 비단 대통령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정치인 모두 스스로 돌아보고 자기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분들은 더욱더 자신에게 물어보고 성찰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이미지가 나쁜 것은 선공후사의 자세보다는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경향 때문이다. 명분은 공익을 강조하지만 내심은 사익을 우선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하다. 봉당정치, 끼리끼리 정치, 이익정당이라는 비난도 모두 사익을 추구하는데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 원인은 기본적으로 정치 지도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불분명하거나 이념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어느 특정 정치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봉당정치, 계파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인은 모두 이에 해당된

다. 공직자들의 부패도 공익보다는 사익을 우선하는데서 출발한다. 선공후사의 자세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은 더욱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정치인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는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성과 정직성과 함께 선공후사의 자세가 요구된다.

국가지도자는 인재를 널리 구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비전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열정과 헌신적인 각오가 없으면 이루어내기 힘들다.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일하는 사람들이 신바람 나게 해야 한다. 어려운 과제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없으면 찾아 나서야 한다. 인사는 오는 사람을 앉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을 찾아 업무를 맡기는 것이다. 능력이 있다고 확인된 사람은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셔야 한다. 인재발굴에 인색해서 자기주변의 사람들만 쓰다 보면 자기들끼리 권력독점화 경향과 권력의 사유화 현상을 초래한다. 이런 정권에서는 국민을 위한 정치와 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 인사에서 중요한 것은 사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일이다. 그래야 공정한 인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발탁한 사람에게는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지도자는 말을 하기보다 많이 들어야 한다. 참모들의 간언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듣기 싫은 말도 참고 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교감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자율과 분권이 가능해진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권위주의적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책결정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 먼저 얘기해놓고 실행이 따르지 못하면 신뢰를 잃는다. 신뢰뿐만 아니라 권위까지 잃는다. 토론과정이나 현장에서는 분위기 때문에 감성이 지배하기 쉽다. 그래서 신중함이 요구된다. 특히 지도자의 감성적 표현은 위험하기 이를 데 없다. 공적인 입장에서는 항상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 3. 지도자의 품격과 덕목

국가지도자는 자기절제와 품격이 있어야 한다. 자기를 낮추고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권위를 부여받으며 존경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이 제시한 지도자의 4대 덕목은 이 시대에 지도자가 새겨야 할 가르침을 주고 있다.

첫째, 애민(愛民)과 애국(愛國)이다. 지도자가 되려면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愛民)과 사욕을 줄이고 공적인 마음을 갖는 자기 수양(修己)에 앞장 서야 한다. 그러나 이를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모든 지도자는 모두 백성 사랑과 나라 사랑을 내세우지만 실제 우리가 겪은 지도자를 보면 선공후사의 자세보다는 사익이 앞장선 경우가 적지 않았다.

둘째, 지도자는 최소한 세계흐름과 국정운영의 대강(大綱)을 파악하고 공동체를 이끌

어 나갈 비전과 이를 실현시킬 정책과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한다. 지도자는 상황을 속속들이 파악하지는 못하더라도 큰 줄기는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비전을 세우고 추진 전략을 강구할 수 있다.

셋째, 인재를 널리 구하고 귀담아 듣고 의견의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구현(求賢)과 선청(善聽)이다. 최고인재를 구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그것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의 하나이다. 물론 인재를 구할 때에는 이념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듣기 좋은 사람만 구하면 인사는 실패하게 된다. 인사를 하고나면 이들을 믿고 업무를 맡겨야 한다. 의견을 구할 때는 선청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옛말에는 임금은 시장에서 나무꾼이 하는 이야기도 헛듣지 말고 귀담아 들어야한다고 하였다.

넷째, 지도자는 자신의 시대가 끝나고 올 다음 시대를 배려하고 준비하며 자신이 이룩한 성과를 국민들과 역사에 돌려주어야 한다. 즉 <후사(後史)와 회향(回向)>이다. 후사란 다음 지도자가 할 일을 하기 쉽게 준비해주는 것이다. 차세대의 지도자적 인재를 키우는 것, 차세대의 비전, 정책과 전략 개발을 돕는 것 등이 모두 후사이다. 회향이란 자신이 이룩한 성과를 국민들과 역사의 주역들에게 돌려주고 본인은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역사의 뒤편길로 표표히 떠나야 한다. ‘떠날 때는 깨끗이’라는 말은 동서고금의 역사의 가르침이다. 이것이 대인(大人)의 품모이고, 큰 지도자의 품모이다.

※ 내 마음같은 정책을 만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후원문자를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